< 머리말>

끝, 그리고 시작

제목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들꽃처럼 소박히 지나쳤다면, 다시 한 번 눈길을 주세요.

“들꽃은 왜 피는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 피어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지는 것.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그런 삶.

만약 그저 꽃이라도 되었더라면, 누군가 ‘예쁘다’고 말해주었을 텐데.

“들꽃은 왜 피는가?” (출처: 네이버 지식iN – ‘기억 속의 들꽃을 읽고 시쓰기’, 정확한 저자 미상)

아무도 모르는 사이 피어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사라지는 것.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름조차 붙여주지 않는 그런 존재.

만약 그저 꽃이라도 되었다면, ‘예쁘다’는 한마디라도 들었을 텐데.

왜냐고 묻는다면

이왕 태어난 거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내 아름다움을 몰라 주고 발로 밟을지언정 잡초처럼 더 강해지려고.

그러다 보니 이름이 생기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생기더라.

나도 그대에게 묻는다.

들꽃은 왜 피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태어난 것만으로 끝이라면, 왜 우리는 사는가?

대학 입학이나 졸업이 인생의 끝이라면, 왜 그 과정에 열정을 쏟는가?

취업이 목표라면, 왜 회사는 우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가?

퇴직이 끝이라면, 그 뒤에는 무엇이 남는가?

늙음이 마지막이라면, 그 긴 여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끝들이 바로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그리고 그 시작이 누군가에겐 ‘나의 들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인트로>

‘0’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무(無)’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동양철학은 바로 이 ‘비어 있음’에서 사유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 존재와 비존재, 말과 침묵 사이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이 책은 그런 질문들을 안고, 다시 그 질문들로 돌아오는 순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모든 것’에서 출발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